

News

은행 中대출서 관계형 금융은 '1%대'...당국, 지원대상 확대

이데일리

금융당국, 관계형 금융의 지원대상 및 인센티브 확대해 제도 활성화 추진하기로... 올 상반기 기준 17개 은행들의 관계형 금융 잔액 총 11조 2,000억 원
상반기 총 중소기업대출 총액 내 비중이 1.27%에 불과해 제도 활성화 추진... 개인사업자의 업력 기준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출 방침

고승범-5대 지주회장 만남 "대출 만기연장 종합검토"

파이낸셜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연장 여부를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으로 확정할 예정
가계부채 이슈 또한 논의... 금융지주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금년 중 5-6%)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을 약속

금융당국의 빅테크 규제에...은행들 '제판분리' 우려도 완화

e대한경제

금융위, 빅테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에 은행권 크게 안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해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에 대한 기대 표명
빅테크의 금융중개 행위가 당분간 중단되면서 은행권의 제판분리 가능성도 완화가가능... 디지털 플랫폼 사업 개발해 소비자 접점 늘릴 것 강조

금융위 '관치 종결' 선언...금융사 배당결정 자율에 맡긴다

매일경제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리와 배당 등 금융권 경영사항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 금융당국의 관치금융 관행에 제도 결렬 전망
시장 친화 금융 정책과 감독 강조... 과거 일방적 제재 중심의 관행을 종식하고 금융권과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하겠다는 의지 반영

카카오페이,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 중단... 파장은?

머니S

카카오페이,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 전격 중단... 유사 서비스 기획하던 핀테크 사들도 사업 전략 수정 불가피 해져
금융위,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 등 제반 사항을 들여다 볼때, 구조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 많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

'헬스케어 플랫폼' 활성화 기대... '선불전자지급업무' 허용

한국보험신문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보험업계,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고객 건강증진에 따른 리워드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가능하게 되었기 때문

국내에서도 '주식 소수점 거래' 전면 도입..."내년 3분기 유력"

아이뉴스

국내에서도 주식 소수점 거래 전면 도입... 코스피, 코스닥 상장 주식은 물론 해외주식도 이와 같은 거래 가능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예정... 올해 10~11월 중 희망사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지정 받을 것

키움증권 '빚투' 관리 돌입...신용융자 대용 비율 조정

연합인포맥스

키움증권, 빚투 규모 커지자 대출 한도 관리 나서... '키움형 대용' 계좌에 한해 보증금 내 현금 비율을 20%에서 25%로 상향...14일부터 시행
NH투자증권도 15일부터 신용거래융자 신규 매수 일시 중단 언급... 대신증권은 13일부터 신용거래융자와 신용거래대주 신규 거래 일시 중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